

# 거점형 중학교 육성 학령인구 유출 방지

전북자치도교육청, 타 시도교육청 기숙형 학교 모델 참고  
지역교육거버넌스위원회 심의 과정 등 반영해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거점형 중학교 육성으로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진학을 위해 면지역에서 읍지역이나 시지역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 거점형 중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의 하나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점형 중학교 도입은 지난해 4월 남원시의회와의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남원 서부권(금지면, 송동면, 수지면, 대강면)을 대표하는 명품중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지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

학교 학령(12~14세) 인구수는 2024년 4만9,219명에서 2034년 2만5,306명으로 2만3,913명(48.6%)이 급감하고, 전교생 9명 이하 학교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종전 1:1통합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타 시도 교육청의 기숙형 중학교 모델을 참고해 전북의 실정에 맞는 거점형 중학교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숙형 중학교란 인접한 2~5곳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해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학부모 부담경감 등 교육주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총복 4개교, 총

남 1개교, 전남 2개교, 경남 6개교, 경북 6개교 등 전국 19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전북교육청의 거점형 중학교는 통합을 희망하는 중학교(3교 이상)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교육거버넌스위원회 심의 과정과 중학교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절차 등 교육주체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장수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재배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권 거점형 중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단계 학교통합(수지중+송동중)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거점형 중학교를 희망할 경우 기숙사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통학지원 방안과 폐지 중학교 내 초등학교 지원방안 등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평생학습지원센터는 20일 본관 124호에서 해외 고등 평생교육 체계 포럼을 개최했다.

## 전북형 고등 평생교육 체계 구축·확산 도모

전주대 평생학습지원센터, 해외 고등 평생교육 체계 포럼  
호주 TAFE 운영 현황·영국 대학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발표

전주대학교 평생학습지원센터(센터장 장현애)는 20일 본관 124호에서 해외 고등 평생교육 체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RISE 사업 유관기관과 LIFE2.0 사업 참여 대학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국내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으로 전북형 고등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

진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 고등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역 확산 선진 사례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북형 고등평생교육 체계의 구축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로 전북대 권인택 교수의 '미국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동향과 대학의 발전 과제' 주제발표를 시

작으로 전주대 송해근 교수의 '호주 TAFE 운영 현황과 시사점', 성균관대 장지은 초빙교수의 '지역의 문제와 대학 자원의 창조적 만남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석좌 연구위원의 '영국 대학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례 - 런던대 Birkbeck College를 중심으로'가 발표됐다. 이후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생을 좌장으로 우석대 박경희 교수, 호원대 김은미 교수, 전주대 이재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 평생교육체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

## “학폭 전담조사관제 시행, 본래 목적 맞게 운영돼야”

전북교총,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교사 학폭 업무 경감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남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총 등 교육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외부에 이관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수정·보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폭전담조사관이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훨씬 적은

1,955명으로 시작되고,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시행과정에 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총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시행령에 명시됐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교육감에 위임했다”며 “법적 근거가 모호해 10만 2,600여 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외부 이관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에 대해 “교사 부담 완화 취지 퇴색, 학부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매뉴얼에서 명확히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도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직접 가·피해 학생·학

부모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사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업무 몰아주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 업무는 교원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왔다”며 “교총은 지난해 12월 10만 2,600여 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외부 이관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재차 밝혔다. 끝으로 “학교폭력 조사 등의 이관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피해 학생의 화해, 관계 회복 등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검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 “식품산업 진흥 모델 만들어갈 것”

우석대 오석흥 진천캠퍼스 부총장  
식품산업진흥포럼 신임 회장 선출



우석대학교 오석흥 진천캠퍼스 부총장(사진)이 20일 전북대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제7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까지 2년이다. 오 부총장은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헌신하는 등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정받는 대표적 인물이자 손꼽히고 있다. 특히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자와 풍부한 미네랄 함유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천일염에서 항비만 효과를 가진 유산균을

세계 최초로 발견, 우리 전통 식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연계형 특성화 대학원 과정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운영, 지금까지 총 46명의 전문 인력을 지역 식품 산업체와 연구기관에 진출시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유공자 포상(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오뚜기 학술상(한국식품영양과학회장·오뚜기재단 이사장), 제68차 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한국식품과학회), 제10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공로상(전북테크노파크)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신임 오석흥 회장은 “지·산·학·연의 지속적이고 끈끈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한국식품 산업 진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기관 계약업무담당자, 각급 학교 행정실장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계약업무담당자의 산업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 및 건설공사 발주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학교) 공통 위험성평가 예시안 마련 등 올해 전북교육청의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재해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2024 대학일자리 플러스 우선 협상대학 선정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조덕현)는 2024년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우선협상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0일에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대상으로 청년고용정책 안내·고용센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2020년 이 사업의 전신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 3월부터 최대 5년까지 연간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장은성 기자

## 2024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안내

전북자치도교육청, 보건교육 업무담당교사 대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각급 학교 보건교육 업무담당교사 7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학생 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는 △평생건강 기반 보건교육 내실화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취약학생 건강보호 등 3가지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과정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교육 강화 △마약류 및 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체계화 △지역을 선도하는 건강증진학교 운영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바른 체형 유지 및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치아우식 예방 및 구강보건 관리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학생들의 평생건강 기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마약류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흡연예방 및 보건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으로 초3, 중1, 고1학년들이 유해약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건강증진학교 운영으로 학교별 학생 건강지표 실태진단 결과에 맞는 학교별 건강문제 개선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대응 전문가 협업체를 정례화하고 학생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바른 체형 및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신체 불균형 진단 검사와 구강진료지원 사업도 지속된다. 마지막으로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취약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제1형 당뇨병 및 희귀난치질환 학생 지원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를 확대 추진한다. 이 외에도 보건교육 컨설팅 지원단 운영, 보건교육 순회지원, 코로나19 위기관리 백서 제작, 보건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평생 건강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교사 및 보건교육 담당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내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와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20일 비전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산학협력 공동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전주비전대, 2023 산학협력 공동 성과 발표

골밀도 검사 시 피폭선량 저감 차폐 앞치마 개발 등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0일 비전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산학협력 공동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한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9개),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9개), 애로기술지도(40개)를 메타버스 전시관에 탑재해 유관기관, 산업체 등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연구과

제로 ‘골밀도 검사 시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차폐 앞치마 개발(방사선과 문운규 교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로 ‘시니어를 위한 구강기능 향상 치과 교육자료 개발(치위생과 김미정 교수) 등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한 18개 과제의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효과적인 구강 관리를 위한 치주치 및 예방관리(치위생과 임차영 교수)’, ‘자활사례관리 애로지도(사회복지경영과 조영주 교수) 등 4개 과제의 성과를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성과평가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은 지난 19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2차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전주기전대학에서 보유한 우수 기술을 활용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다. 전주기전대 LINC3.0 사업단은 지난해 7월 도내 우수산업체들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선정, 교내 ICC(기업협업센터) 특화 분야 인력과 기술을 동원해 총 5,2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금화규의 플라젠을 함유한 미스트 개발 상품화 연구(허브조경과 이동욱 교수)와 ‘발모에 도움을 주는 천연 약용식물 성분의 약제수 용용화(뷰티디자인과 김상현 교수)’ 등 총 2개 과제에 진행, 공동 특허출원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연구 목표의 달성도 △사업 결과물의 우수성 및 활용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간호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학부장 김재현)는 지난 1월 19일 치러진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자 109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호사 국가시험 전체 합격률은 96.7%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2021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5년 인증을 획득한 간호교육기관으로, 2022년 졸업생 기준 93.0%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장은성 기자